

축사1. 자승스님

## 마음의 울림을 공유하는 공감

2014년 우리 가슴에는 세월호의 아픔, 남북의 긴장,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한 다사다난의 안타까운 일들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평화와 상생을 염원하는 예술인과 종교인들이 2014년 ‘대한민국통일서예미술대전’을 정성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예술인은 아름다움을 창작하고 정서적 감응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시대마다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작품에 반영합니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가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역사의 아픔에 고뇌할 때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예술작품이라도 부단한 노력 없이는 이를 수 없는 정진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혼의 근간으로 우리 민족은 세상이 풍요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시절 인연에 따라 아름다운 심성을 불러일으켜,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예술을 항상 꽃피워 왔습니다.

시대를 이끌었던 예술가와 사유자들은 한결같이 ‘진정한 예술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술과 종교가 주는 감동은 마음의 울림을 공유하는 공감의 영역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좋은 느낌을 통해 공감을 주고자 하는 진력은 곧 예술과 종교가 만나는 마당이자 종교와 예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자유의 지향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국가, 정치, 경제, 이념, 사회 등 모든 현상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함께 고려할 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우리의 안목은 현재를 직시하면서도 항상 미래에 열려있어야 하고, 현실의 고통에 있으면서도 더 나은 대안을 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평화통일과 국민화합,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염원하는 우리의 활동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곳을 향하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며, 비로서 ‘공감’이라는 풍성함으로 화답해 올 것입니다. 나아가 예술가와 종교인들이 갖는 자유롭고 헌신적인 활동은 우리 민족의 이념이자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향기로운 공감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보고 마음까지 점검하는 절기에, 여러 작가님들의 성취와 결실로 인해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온기가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